



3면

문 대통령 "저탄소 전략 마련 탄소중립 국제사회와 보조"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음 10월 8일) 제2664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 초과밀화

김명지 도의원 "교육감 3불통 사태자조" 꼬집어 "초포초 대규모 증설이 현실적 대안" 결단 촉구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 8)이 23일 열린 제377회 전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주시 에코시티의 초등학교 초과밀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초포초 대규모 증설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개교한 화정초와 2020년 개교한 자연초가 있지만, 터무니 없는 학생수요 예측으로 개교 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개교 3년째와 1년째를 맞는 두 학교는 벌써부터 초과밀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땀 흘려 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화정초와 자연초, 그리고 초포초까지 모듈러교실(개별 단위 모듈을 수직·수평으로 조립·완공하는 방식의 이동형 임시교실) 설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가용한 특별교실을 최대한 보통교실로 전환하고서도 모자라는 학급을 모듈러교실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탄력적인 임시방편을 교육청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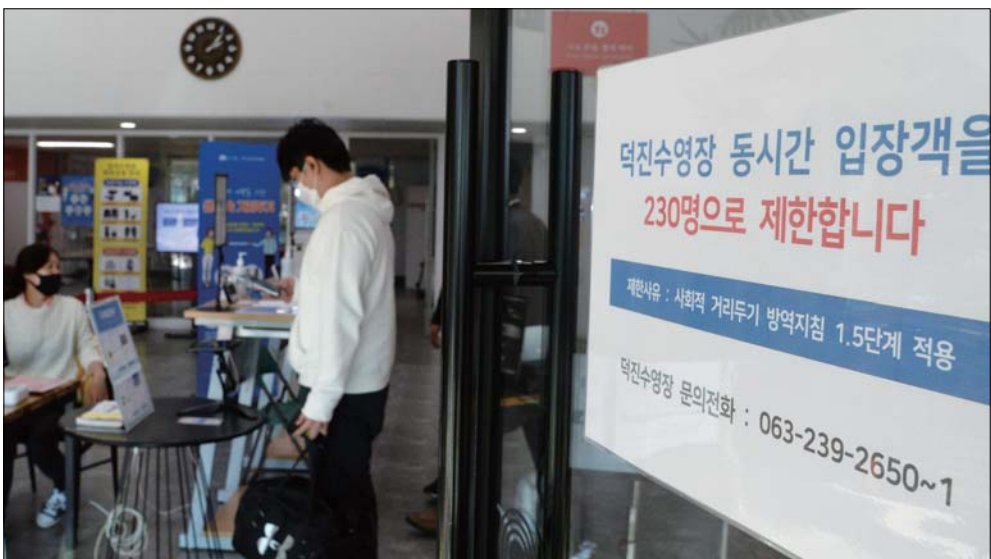
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초포초 대규모 증설을 제시하며,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초포초는 에코시티와 바로 인접해 있고, 현상태에서도 최대 12개 학급을 위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에코시티 특성상 방과후 프로그램만 확실히 보장해준다면 얼마든지 초포초로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라며 "초포초의 대규모 학생수용능력 확장과 방과후 프로그램 및 통학로 개

설 등 유인책만 마련한다면 2021년 입주예정인 14블록의 아이들을 초포초로 강제배정하는 불합리한 처사도 막을 수 있고, 에코시티 내 학교현장의 초과밀현상 해소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초과밀현상을 방지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3불통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교육철학이라는 미명하에 포기하지 않는 '고집불통' ▲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도 만나지 않는 '반남불통' ▲ 학부모들과 함께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도 정보를 독점하는 '공유불통'을 단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거리두기 1.5 단계로 인원 제한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자가 늘어지며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적용한 23일 전주시 덕진수영장 입구에 인원 제한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도내 올겨울 작년보다 춥다... 12~1월 가끔 많은 눈

올겨울 전북은 따뜻했던 지난해보다 기온이 내려가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주기상지청 "2020 겨울철 기상 전

망'은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

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커 큰 추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지역 평년 기온변위는 12월 1.6~2.6도, 1월 영하 1.1~0.1도, 2월 0.6~2.0도로 올겨울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이다.

전북 삼락농정 우수사례 정부혁신 박람회서 선보

내달 3일까지 온라인 개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전북도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온 혁신정책과 성과를 '정부혁신 박람회 전북전시관'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린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박람회 누리집(www.innoexpokr)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박람회는 현 정부의 3년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과 공유·홍보하는 장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혁신을 다짐하기 위한 행사이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을 주제로 삼락농정 정책과 성과를 전북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전북 소농대대로 연계해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락농정 정책은 '보람찾는 농업, 재밌는 농업, 사람찾는 농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농정의 대상으로 확대한 새로운 지역농정 패러다임이다.

특히 민·관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거 행정 주도의 농정에서 탈피한 민간주도의 협치 성공사례라는 점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도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하고 있는 삼락정책들을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의 대표 소농플랫폼 전북소농대대로(policy.jb.go.kr)와 연계한 퀴즈이벤트를 추진하고,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www.jretum.com) 및 거시기 장터(www.jp.laza.com)도 함께 소개할 계획으로 건강한 전북을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올해 2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가치, 디지털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을 주제로 박람회 누리집 내 55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과 함께 정부혁신 성과·우수사례 전시, 온라인 생방송 혁신TV 및 유튜브(정부혁신1번가 채널) 등으로 구성해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국민의 희망을 담은 영상으로 박람회 시작을 알리고, 매일 새로운 주제와 방식의 방송 실시간 댓글 참여, 토론 등으로 국민과 생생한 소통을 추진한다.

혁신박람회 전북전시관을 기획한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삼락농정 위원회를 통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등은 민·관협치의 혁신사례로 중앙부처와 타지자체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많은 사회적 변수가 발생하고 변화가 급격한 시대,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